

《조선일보》 첫 연재소설 관해생의 〈춘몽〉 고찰

최성윤

고려대학교 강사, 현대문학 전공
soounduk@hanmail.net

- I. 문학연구와 '필명'의 문제
- II. 《기호홍학회월보》의 고정필자 관해생
- III. 〈춘몽〉 자료의 서지적 검토
- IV. 〈춘몽〉 자료의 신소설적 정체성
- V. 〈춘몽〉의 작가 해명을 위한 보완적 추론
- VI. 맺음말

I. 문학연구와 ‘필명’의 문제

문학연구와 교육에서 밝혀지지 않은 ‘필명’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점차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개화기 혹은 계몽기로 일컬어지는 근대 초기의 많은 텍스트들은 생소한 필명으로 인해 ‘작자 미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문학사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활발히 제기되지 않은 습작 혹은 소품의 성격을 띤 텍스트일 경우 굳이 그 작자를 밝히는 것이 무슨 생산적 의의를 가지겠는가 하는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밝힐 수 있는 것을 밝혀내어 텍스트의 필자를 확정하거나 최소한 추정이 가능한 근거 자료들을 모으는 일은 설사 그로 인해 문학사적 맥락이 수정되는 일이 없다 해도 지속되어야 한다.

1920년대와 그 이전의 자료들에서 생소한 필명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본명을 써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으리라 짐작되는 경우가 있다. 정식으로 문단에 등장하지 않았거나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은 필자의 일시적 기고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필자가 나중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 누구나 알 만한 문인으로 성장하였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과거 자신이 집필한 텍스트와 필명을 작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텍스트 필자의 정체를 가려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물론 작가 스스로 밝히기를 꺼렸거나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은 텍스트를 후세의 연구자가 들추어내는 일은 자칫 해당 문인의 작품세계를 확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질적 평균을 떨어뜨리는 해석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알려진 등단작 이전 습작 수준의 텍스트라 해도 근대 작가의 문학수업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고, 당시가 말 그대로 근대문학과 근대적 문단의 형성기였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텍스트의 주인 찾기 작업은 불가피한 일일 수밖에 없다.¹⁾

1) 예컨대 이광수가 ‘이보경(李寶鏡)’이라는 필명으로 「문학의 가치」(《대한홍학보》, 1910. 3)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보경이 이광수의 아명이었음이 밝혀진 지금의 상황에서도 많은 문헌들은 문학을 Literature의 역어로 제시한 사례로 〈문학이란 하오〉(《조선일보》, 1916. 11. 10-23)를 반복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즉, 생소한 필명이 부기된 텍스트들은 질적 수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해당 작가의 동 시기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들이 곧이어 형성될 초창기 문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문단 형성 이후 등장한 후배 작가들의 습작과정과는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초창기 문인들의 습작과정이란 달리 말해 문학사적 견지에서 근대문학의 형성과정과 동계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²⁾

그런데 위 경우와는 달리 이미 독자층에 이름을 알린 작가가 자신의 본명이나 잘 알려진 호를 사용하지 않고 생소한 필명을 임시로 지어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발표 매체의 속성과 관련지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1920년대와 그 이전의 정기간행물은 필진 부족에 시달렸거나 일인다역의 소수 필진에 의존했던 것이다. 하나의 매체에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의 작가가 여러 텍스트를 전담하거나 분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텍스트마다 혹은 장르에 따라 다른 필명을 쓰는 관행이 생기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여타 문인들에 비해 특히 다양한 필명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광수와 이해조를 들 수 있다. 이광수는 본명과 춘원이라는 호 외에 장백산인·고주·경서학인·외배·보경 등의 필명을 사용하였고, 이해조는 본명 이외에 열재, 동농 등의 호와 더불어 우산거사·수문생·신안생·석춘자·선음자·이열재·해관자·하관생 등의 수많은 필명을 사

인용과 가치 부여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광수가 〈문학이란 하오〉에서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을 전통적 학문의 개념에서 '문예' 쪽으로 견인한 최초의 문인이 이광수라는 사실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문학의 가치」가 〈문학이란 하오〉보다 6년 이상이나 앞선 글이라는 점은 위 두 가지 사실만큼이나 중요하다. 1910년대의 상황에서는 1년 혹은 1개월의 차이라도 소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학=Literature'의 공식이 잡지를 통해 발표되었다는 점, 그 글의 독자들과 함께 유·무형의 토론과정과 개념어 정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1910년과 1916년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최성윤, 『한국 근대초기 소설 작법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선행 논문에서 1920년대 초반 《조선일보》 연재소설을 검토하고, '격공생(擊空生)', '청황생(靑黃生)', '포영생(泡影生)' 등의 필명으로 변안소설을 연재한 작가가 등단 당시의 현진건임을 주장한 바 있다. 소설 번역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하여 창작소설로 이행하는 등단 초기의 과정에서 현진건은 통속적 변안소설을 초창기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이 같은 작업이 현진건에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작가 수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면 후대의 작품세계와 전혀 무관할 리가 없는 것이다. 최성윤, 「《조선일보》 초창기 연재 번역·변안소설과 현진건」, 『어문논집』 65호(2012. 4), 463-485쪽 참조.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69년과 1892년이라는 생년의 차이만큼 글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세대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만, 1910년 한일강제 병합 이전 비슷한 시기에 공식적인 문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광수와 이해조는 활동 기간과 작품 수 면에서 보면 근대문학사상 독보적이랄 만큼의 왕성한 창작열을 과시한 문인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다수의 필명을 사용한 만큼 밝혀진 것 이상의 다른 필명을 더 사용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이미 10여 개의 필명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작가가 그 이상의 필명을 사용했을 확률은 본명을 포함하여 두세 개의 필명을 꾸준히 사용한 작가가 다른 필명을 가질 가능성보다 오히려 높지 않겠는가. 신진 작가의 습작기 필명과 마찬가지로 기성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필명 또한 가능한 대로 밝혀내야 할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문학사적으로 뚜렷한 의의를 가진 문인의 작가론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공백지점을 드러내고 있다면 마땅히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조선일보》 연재소설 〈춘몽〉³⁾에 부기된 필명 ‘관해생’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단적으로 말해 근대 문인의 작가론을 꾸준히 수정·보완하는 일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빈 곳을 채워 넣는 작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검증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근거들을 확충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관해생’이라는 필명이 1920년 이전에 미리 쓰인 예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대상 텍스트인 〈춘몽〉을 포함한 해당 기간 《조선일보》 자료의 광범위한 탐색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작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근대 초기 서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안팎을 꼼꼼히 살피고, 필명의 주인을 고증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춘몽〉 이외에도 수많은 작자 미상(미확인 필명이 부기된 작품을 포함하여)의 텍스트가 존재하는데, 작가의 실체라는 객관적

3) 관해생, 〈춘몽〉, 《조선일보》, 1920. 3. 9-7. 7. 연재 지면에 ‘소설 춘몽 春夢 觀海生’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20년 7월 7일자에 56회로 마감되었으나 6월 30일자와 7월 1일자 연재분에 모두 50회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연재 횟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20여 회 분량의 결락 부분이 모두 검증되어야 정확한 연재 횟수를 밝힐 수 있다.

사실의 보충은 물론이고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새로 구성할 수 있는 맥락까지를 하나의 모형 안에 제시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II. 《기호홍학회월보》의 고정필자 관해생

1908년 8월 창간하여 1909년 7월에 12호를 끝으로 폐간된 《기호홍학회월보》는 단체 기관지 성격의 월간잡지이다. 이 잡지의 1호부터 12호까지 한 호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필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관해생(觀海生)’이다.

잡지 《기호홍학회월보》의 수록 텍스트는 그 성격에 따라 논설, 학술, 문예, 잡저, 학계 및 학회의 소식 등으로 나뉘고 대개 이 순서에 따라 편집되었는데, 관해생은 잡저류로 분류되는 「동서격언」, 「청구미담」 등을 맡아 매호 집필했다.⁴⁾

《기호홍학회월보》의 필자명은 텍스트의 갈래에 따라 특색 있게 표기되었다. 논설, 평론류의 필자명은 대부분 본명을 따랐으며, 시 등 문예작품이나 잡저류의 필명은 별호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중 고정된 제목으로 연재되는 형식의 잡저류에 ‘관해생’, ‘만운생(晩雲生)’ 두 필명이 빈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명의 필자가 맡아 연재한 글이 위에서 언급한 「동서격언」과 「청구미담」이다.

2개의 필명 중 만운생의 주인은 《기호홍학회월보》 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지(同誌) 11호(1909. 6)에 수록된 시 〈웅(鷹)〉⁵⁾의 필자 홍정유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필명 ‘관해생’은 누구의 것인가.

4) 「동서격언(東西格言)」은 말 그대로 동서양의 속담 및 격언 등을 소개하는 기사이며, 「청구미담(靑邱美談)」은 우리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일화를 간단히 요약한 후 짧게 의미를 덧붙이는 성격의 글이다. 전자는 제목 뒤에 필자명과 ‘譯’ 표기를 하였으며, 후자는 필자나 텍스트의 성격을 지정하지 않고 필자명만 표기했다. 「동서격언」은 1호부터 12호까지 매 호 수록되었으며, 「청구미담」은 2호부터 11호까지 총 10회 수록되었다.

5) 수록 지면에 ‘晩雲 洪正裕’라고 작가명이 표기되어 있다. 홍정유는 《기호홍학회월보》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별호를 부기하지 않은 본명만으로 많은 글을 실었는데, 11호에 한시를 수록하면서 만운이라는 호를 병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호홍학회월보》 11호를 통해 앞서의 권호에서 별호만 기록한 텍스트의 저자를 여럿 확인할 수 있는데, ‘藥園 徐相浩’, ‘雲養 金允植’, ‘翠雲 吳炳日’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잡지의 어디에서도 이 글의 관심사인 ‘관해생’ 혹은 ‘관해’라는 필명에 대한 본명 정보는 발견되지 않는다.

먼저 「동서격언」과 「청구미담」 텍스트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과 같은 잡저류는 대개 권말에 수록되는 것이 보통이며 해당 잡지의 편집자가 집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동서격언」의 역자, 「청구미담」의 필자 또한 《기호홍학회월보》의 편집자일 가능성이 높다. 만운생, 즉 홍정유가 언제부터 해당 잡지의 편집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본명으로 논설을 발표한 1, 2호 발간 당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서격언」을 '만운생'이라는 필명으로 번역 게재한 3호(1908. 10)부터는 편집자 일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기호홍학회월보》 1호에는 「동서격언」만이 '관해생 역'으로 수록되어 있고, 2호에는 「동서격언」과 「청구미담」이 모두 '관해생'이라는 역자명 혹은 필자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3호와 4호에서는 만운생이 「동서격언」을 번역하고, 관해생이 「청구미담」을 집필했다. 5호부터는 관해생이 「동서격언」을 번역하고 만운생이 「청구미담」을 집필하는 것으로 역할이 교체되었으며, 이 같은 체제가 11호(1909. 6)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점은 관해생이 창간 당시의 편집자로서 「동서격언」과 「청구미담」을 기획하고, 이후에 편집에 참여한 만운생에게 둘 중 하나를 집필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틀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역할 교체도 뒤따랐을 것이다.

《기호홍학회월보》의 편집책임자는 이해조였다. 동 잡지의 편집과 발행에 이해조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이해조는 기호홍학회의 회원·임원·평의원으로서, 기호학교의 겸임교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⁶⁾

이해조가 자신의 본명을 걸고 《기호홍학회월보》에 게재한 글은 「윤리학」⁷⁾과 「학계의 전망증」⁸⁾이 전부이다. 이 중 5호부터 폐간호까지 연재된 「윤리학」이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텍스트인데, '관해생'을 그의 필명으로 간주할 때 이해조는 《기호홍학회월보》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자신의 흔적을 지속적으로 남긴 것이 된다.

6) 이 같은 사실은 《기호홍학회월보》의 매호 권말에 수록된 「회중기사(會中記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이해조, 「윤리학」, 《기호홍학회월보》, 1908. 12-1909. 7(8회 미완).

8) 이해조, 「학계의 전망증」, 《기호홍학회월보》, 1909. 4.

요컨대 《기호홍학회월보》는 1908년 8월부터 1909년 7월까지 발간된 잡지이며, 이 기간 동안 매호 자료에서 '관해생'이라는 필명이 발견된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난 1920년의 텍스트에서 '관해생'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연재소설 〈춘몽〉의 필자 '관해생'이다.

III. 〈춘몽〉 자료의 서지적 검토

관해생의 〈춘몽〉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일보》의 첫 연재소설이다. 《조선일보》의 창간일자가 1920년 3월 5일이라고는 하나 현존하는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3월 9일자인 지령 3호이다. 3월 9일자 《조선일보》의 4면에 〈춘몽〉이 실려 있고 이후 연재가 지속되는데, 해당 일자의 연재분에는 회차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현존 자료 중 3월 9일자에 이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월 12일자인데, 즉 지령 8호이다. 해당 일자의 〈춘몽〉 연재분에 '八'이라고 회차 정보가 표기되어 있으니, 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한다면 〈춘몽〉은 최소한 《조선일보》의 창간호부터 8호까지 매호마다 연재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조선일보》의 창간 당시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춘몽〉 연구의 걸림돌이지만, 사실 초창기 《조선일보》는 일간지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하루하루의 지령을 쌓아가기가 힘든 새 매체였다. 휴간과 정간이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1920년 마지막 자료인 12월 29일자의 지령이 144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춘몽〉 3회(추정)가 실린 3월 9일자의 2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社告)가 게재되어 있다.

本報는 初號發行과 共히 社會의 贊評이 甚高함과 同時에 購讀要求도 實로 多大하야 數萬의 印刷部數로도 早期不足을 告하는 等 豫想以上の 好積을 敢하는 터이나 印刷上 事情의 不得已함을 因하와 [...] 工場其他의 整理를 充分히 行하야 報道의 迅速 及 紙面의 精美를 期하옵기 茲에 一時休刊하옵고 來月 四月 二十一日을 下하야 第四號의 續刊을 爲함과 同時에 爾後引續하야 ……⁹⁾

9) 「社告」, 《조선일보》, 1920년 3월 9일자, 2면.

3월 5일에 신문이 창간되었다면 나흘 후인 9일에 3호가 발간되었으니 이미 이들의 공백이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고작 3호 발행 후 한 달 이상의 공백기를 가지겠다는 공지가 창간을 축하하는 각계각층의 축하 및 휘호와 함께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4월 21일자 자료는 물론 부근 날짜의 신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데, 설사 속간 날짜의 약속이 지켜졌다 해도 5월 12일자 신문이 지령 8호라면 일시적 휴간은 이후에도 반복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연재소설 〈춘몽〉이 8회 연재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69일에 이른다.¹⁰⁾ 만약 〈춘몽〉이 연재 이전에 미리 완성된 원고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재 작가의 집필 환경이 매우 열악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문사의 사정에 의해 어느 시점에서 연재가 중단되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춘몽〉의 필자는 신문사로 부터 원고료를 받고 연재분을 송고하는 전업 작가가 아니라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 신분의 전속 작가일 수도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이전에도 많은 신문들이 연재소설을 선보였다. 이인직의 〈혈의 루〉¹¹⁾ 등 많은 신소설 작품들뿐 아니라 최초의 근대 장편으로 공인된 이광수의 〈무정〉¹²⁾ 또한 신문 연재소설이었다. 이광수가 〈무정〉을 연재하던 1917년 부근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특히 1910년대 초반까지는 신문사 기자로서 소설 연재를 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인직이 《만세보》의 기자요 주필이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이 주필로 있는 신문에 〈혈의 루〉, 뒤를 이어 〈귀의 성〉¹³⁾을 연달아 연재했다.¹⁴⁾ 〈혈의 루〉 마지막 연재 일자가 1906년 10월 10일이며 〈귀의 성〉의 연재가 그 4일 후인 10월 14일에 시작된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편의 장편 연재가 끝난 직후 다른 소설의 연재를 시작하는

10) 5월 12일자 발행 이후 한동안은 유실된 자료에 상관없이 비교적 공백 없는 신문 발행과 소설 연재가 병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춘몽〉의 56회 마지막 연재분이 실린 7월 7일자 신문의 지령은 64호이다. 《조선일보》 8호(5월 12일자) 이후부터 64호(7월 7일자)까지 발행되는 데 걸린 시일은 56일이다. 즉, 현재 유실된 자료에 상관없이 신문 발행은 계속되었으며, 7-8일을 제외하고는 매호에 연재소설 〈춘몽〉이 게재되었던 것이다.

11) 이인직, 〈혈의 루〉, 《만세보》, 1906. 7. 22-10. 10.

12) 이광수, 〈무정〉, 《매일신보》, 1917. 1. 1-6. 14.

13) 이인직, 〈귀의 성〉, 《만세보》, 1906. 10. 14-1907. 5. 31.

14) 〈혈의 루〉, 〈귀의 성〉의 서지사항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김영민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술출판사, 1997), 214-220쪽 참조.

이인직의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혈의 루〉가 미완상태로 《만세보》에서의 연재를 중단했다는 사실이다. 즉,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 〈혈의 루〉를 완결 짓는 것만큼이나 기자로서 빈 지면에 새로운 연재물을 채우는 일이 시급했던 것 아니겠는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1920년 당시 《조선일보》의 상황은 안정적인 연재소설 필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 사정과 관계없는 외부 필진이 자신의 완결된 작품을 나누어 내거나 연재 일자에 맞추어 각 회분을 집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창간하자마자 기존 매체인 《매일신보》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하에 있었다. 다른 종류의 기사는 차치하고라도 연재소설 등 문예란의 경우 일제 조중환, 하몽 이상협, 우보 민태원, 설원 백대진, 천풍 심우섭 등 당대의 인기 작가들을 필진으로 보유한 《매일신보》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매일신보》의 기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휴간과 정간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조선일보》 4면 연재소설 〈춘몽〉의 지면을 꾸준히 채워나간 관해생은 과연 누구인가. 이를 확정적으로 밝힐 수 있는 서지적 근거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작품의 내용이나 문체, 구성 방식 등을 살펴 이전과 이후의 비슷한 작품과 비교·고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1920년 3월 당시 새로 창간된 신문에 첫 번째로 소설을 연재할 만한 작가로 누가 발탁될 만한가를 꼽아보는 일이 요긴하겠다. 1920년 3월이라는 시기가 근대 문단이 형성되기 이전임을 감안하면 창작이든 번안이든 장편 텍스트를 연재할 만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예상되는 문인은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¹⁵⁾

위 두 가지 조건을 겹쳐놓고 접점을 찾으면 후보군의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장편 연재 경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당대의 작가들 중 〈춘몽〉과 비슷한 내용, 일개의 작품을 쓴 사람은 누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조선일보》에 기자로

15) 염상섭, 김동인 등 이른바 1920년대 작가들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하기 이전이므로 이른바 본격적 근대 작가로는 이광수 정도만이 논의 대상에 남아 있게 된다. 물론 이광수도 〈춘몽〉의 작가일 가능성은 없다.

근무하면서 작품을 연재하는 경우의 조건을 추가하면 후보군은 더 압축된다. 기자 경험이 있는 작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작품을 연재한 적이 있는 작가들 중 이미 타계한 사람¹⁶⁾이나 《매일신보》에 여전히 남아 글을 발표하고 있는 사람, 《조선일보》의 뒤를 이어 동년 4월 창간한 《동아일보》로 이직한 사람¹⁷⁾을 빼면 누가 남는가.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가로 동농 이해조가 있다. 게다가 이전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해조가 편집인으로 활약하던 《기호홍학 회월보》에 ‘관해생’이라는 필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하겠다.

물론 이해조가 1913년 《매일신보》에서 물러난 뒤부터 7년 가까운 연보상의 공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춘몽〉이라는 텍스트의 장르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해조와 같은 해당 가능성이 있는 작가의 글쓰기와 비교·검토해보는 과제도 남아 있다.

IV. 〈춘몽〉 자료의 신소설적 정체성

관해생의 〈춘몽〉은 전형적인 1910년대 신소설의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먼저 불완전하나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연재분 자료만을 가지고 요약해본 작품의 경계를 제시한다.

안동 이 백작의 아들 이 시종의 집안은 지위와 명예, 재산을 고루 갖춘 명문가이다. 이 시종의 사람됨이 모자란 것을 안 박 시어, 장 주사 등의 협잡배들이 이씨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기생 첩치가를 주선하고 이 백작 명의로 돈을 빌리게 한다. 이 시종의 부채 때문에 차압이 들어오게 된 것을 이 백작이 알게 된 이후에도 목 참봉, 임 위원, 정 판관 등 돈에 눈먼 자들에 의한 재산 빼내기는 계속된다. 결국 이 백작이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시종은 목 참봉에게 누대로 내려온 집 하나를 뺀 나머지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신세가 된다. 상노 을동, 세교가 있던 김 교원, 학도 최창세 등의 충고를 듣지 않고 목 참봉 일당의 노리개가 되어버린 이 시종은 목 참봉이 매달 내어주는 시랑에 의존하여 겨우 연명한다.

16) 예컨대 이인직은 1916년 타계했다.

17) 허몽 이상협과 우보 민태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1920년 4월 창간한 《동아일보》로 이직하였으며, 《동아일보》의 첫 연재소설 〈부평초〉(《동아일보》, 1920. 4. 1-9. 4)는 민태원의 변안소설이었다.

을동은 이씨 집안을 빠져나와 고학을 하고, 이 시종의 어린 동생 증창은 가출했다가 천행으로 창세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을동은 미국인 목사의 도움으로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이영만이라 개명한 후 은행 지점장이 된다. 한편 목 참봉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 큰 부를 좇다가 금광과 수리사업에 모두 실패하여 송사에 휘말린다. 목 참봉의 지원마저 끊긴 이 시종은 집을 처분하라는 독촉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누가 보냈는지 모를 식량과 땀감, 그리고 돈을 받게 된다. 한편 유학을 떠났던 증창과 창세가 금의환향하여 이영만과 함께 이 시종을 찾는다. 영만은 이 시종에게 그간 썰과 돈을 지원한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밝힌다. 돌아온 증창은 실업가가 되고, 창세는 법관이 된다. 우연히도 처음 맡은 사건이 바로 목 참봉 사건이었으므로, 창세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이씨 가문의 재산과 권리를 회복시킨다.(정라-필자)

위 경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품의 제목 ‘춘몽(春夢)’은 헛된 꿈을 좇다 가산을 탕진하게 되나 정당한 판결에 의해 복권되는 주인공의 삶을 한바탕 봄날의 꿈에 빗댄 것에서 비롯되었다. 구시대적 질서와 부정적 습속이 여전히 남아 근대적 정신으로 무장한 신세대 인물과 공존하는 시공간적 배경이 설정되어 있다. 신구의 공존·대립 상황에서 신세대적 질서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많은 신소설 작품과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예컨대 관해생의 〈춘몽〉을 이해조의 작품 〈구마검〉¹⁸⁾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구마검〉의 중심인물 함진해와 〈춘몽〉의 이 시종 사이의 동질성이다. 함진해와 이 시종은 모두 당대의 재산가로 설정되어 있으며 악인형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주위에 있는 탐욕스러운 무리들의 유혹에 넘어가 악행을 방관하고 재산도 탕진하며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리시종이 권에 못익이는데 비스듬이 두러누으며,
 홀슈업다. 여러 친구도 만류하시려니와 우리 산월이 청을 안이 드를슈었나.
 과연 그 부친이 업혀야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을 혼만치도 억이지 못홀
 디경이면 친구가 아모리 만류하고 계집이 아모리 보치기로 엇지 시각을 지체하고
 잇스리오마는 리시종이 외면치레로 시하인스라고 간다고 말 몇마다를 헛얏지
 기실은 우왕마왕(牛往馬往)을 즈유로 햏야 저의 아바지 말을 터진 짜리로 녀키는

18) 이해조, 〈구마검〉, 《제국신문》, 1908. 4. 25-7. 23. 이후 대한서림(1908)과 이문당(1917)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위인이라. 장주스 박시어가 벌써 그 집 가풍을 력력히 추척하는 고로¹⁹⁾

위의 인용 부분은 본격적인 약탈의 서사가 시작되기 전 이 시종의 사람됨을 서술하는 대목이다.²⁰⁾ 후실 최씨와 점쟁이, 무당, 지관 등에 의해 농락당하여 폐가망신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함진해와 박시어, 장 주사, 목 참봉 등 협잡배들에게 멀쩡히 두 눈을 뜨고 당하는 이 시종은 쌍생아처럼 닮아 있다. 게다가 함진해가 조카 일청과 문중의 정당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이 시종이 부친의 가르침을 흘려듣고 부친 사후에는 최창세, 김 교원 등의 충고를 외면하는 것과 겹쳐진다. 이토록 어리석은 함진해와 이 시종은 스스로의 힘으로 난국을 헤쳐 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는 허깨비 같은 존재다.

두 사람의 주변에 각각 포진해 있는 악한들이 모두 전근대적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도 가치 전환의 혼란기를 틈타 재빠르게 잇속을 챙기는 영악한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춘몽〉의 악인형 인물들이 시어²¹⁾·주사·참봉·위원·관관 등 시대에 걸맞지 않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직함에 관계없이 모리배 협잡을 벌여 변한 시대에 적용하지 못하는 어수룩한 부자(富者)를 마음껏 이용한다는 설정 또한 〈구마검〉에서의 전근대적 미신을 이용한 사기꾼들의 행각과 지극히 유사하다.

몰락에 이르고 나서도 개선의 기미가 없는 함진해를 구원해내는 존재로 신세대 인물인 종표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이 시종을 위한 조력자가 영만, 창세, 중창 등의 신세대임을 드러내는 것과 짝지어 설명할 수

19) 관해생, 〈춘몽〉, 《조선일보》, 1920년 3월 9일자, 4면.

20) ‘이 시종’은 인물의 성명이 아니라 이씨 성을 가진 시종(侍從)이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이 시종이라는 인물 명칭은 이해조의 신소설 〈박정화〉(《대한민보》, 1910. 3. 10-5. 31)와 그 단행본 출판물인 『산천초목』(유일서관, 1912)에도 쓰인 바 있다. 〈박정화〉와 〈춘몽〉에서의 이 시종의 성격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허랑방탕한 인물이면서 협잡배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설정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21) 시어(侍御)라는 낮은 명칭은 조선 말기와 대한 제국기에 걸쳐 궁내부 시종원에서 임금을 가까이에서 받드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를 뜻하는 말이다. 1900년(광무 4)에는 좌시어와 우시어를 두었고, 주임관(奏任官) 직위로 각 1명, 관임관(判任官) 직위로 모두 9명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 작품의 상황 속에서 박 시어라는 인물이 정말 시어 벼슬을 살았던 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 장 주사, 박 참봉 등의 인물도 마찬가지이다. 이 생소한 직함이 쓰인 다른 신소설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해조의 연재소설 〈월하가인〉(《매일신보》, 1911. 1. 18-4. 5)이다. 심 진사의 부인 장씨의 위기 상황에서 의남매를 맺는 인물이 장 시어이다.

있다. 게다가 조력자들의 역할이 위기 상황의 주요인물을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의 힘을 빌려 악인을 처벌한 후 상황을 원점으로 복귀시키는 결말도 두 작품이 동일하다.

무능한 구시대적 기득권층의 이익을 정의 혹은 선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복귀시키는 점에서 두 작품 모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래된 것을 악으로, 새로운 것을 선으로 직대입시키는 권선징구의 틀을 미세하게 비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두 작품의 악인형 인물들은 전근대적이거나 봉건적인 구습에 물들어 있다기보다는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교활하고 영악하게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당대적 인간형이기 때문이다. 신·구의 대립을 조직하기는 하나 당대적 전형으로서의 악인을 부각하여 전환기적 사회를 담아내고자 한 작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의 인물뿐 아니라 〈화의 혈〉²²⁾의 이 시찰 또한 근대적 정신, 습속과는 무관하나 전환기의 세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활한 인물의 전형이다.

사실 ‘춘몽(春夢)’이라는 제목은 신소설 연구자들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딱지본 신소설 『춘몽』 텍스트는 박문서관에서 발행된 해동초인 최찬식의 작품²³⁾과 이후 모방, 표절한 작자 미상의 출판물²⁴⁾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찬식의 〈춘몽〉과 관해생의 〈춘몽〉은 내용의 유사성도 발견되지 않고 인물구도나 주제의식 면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덧붙여 생각해야 할 점은 한 작가가 같은 제목으로 두 편의 성격이 다른 텍스트를 생산하였겠는가 하는 점이다.

관해생의 〈춘몽〉은 1920년에, 최찬식의 〈춘몽〉은 1924년에 발표되었다. 이후 독자들에게 의해 더 익숙하게 수용된 작품은 최찬식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해생의 〈춘몽〉은 대중적인 책의 형태로 출판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²⁵⁾, 최찬식의 〈춘몽〉은

22) 이해조, 〈화의 혈〉, 《매일신보》, 1911. 4. 6-6. 21.

23) 최찬식, 『춘몽』(박문서관, 1924).

24) 대표적인 예로 세창서관 1952년 본 『춘몽』이 있다. 이 책에는 초판이 신홍서관에서 발행되었다는 표지가 남아 있으며, 초판의 발행 시기를 알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찬식의 〈춘몽〉과 비교해보면 인명과 배경을 바꾼 것 이외의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모방작 중 하나이다.

25) 관해생의 〈춘몽〉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못했다면 그 사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작품의 수준이나 텍스트의 가독성 등으로 최찬식의 작품과 비교·판단할

박문서관에서 출판된 후 다수의 동종 모방작, 표절작으로 재생산되었던 것이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속편의 성격이 아닌 작품을 동일한 표제로 창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게다가 최찬식은 이해조처럼 다양한 필명을 사용한 작가가 아니다.

V. 〈춘몽〉의 작가 해명을 위한 보완적 추론

위에서 단계적으로 고찰한 바 《조선일보》 첫 연재소설 〈춘몽〉은 이해조의 작품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상정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를 가능한 한 배제하지 않고 텍스트 내외적으로 추적한 결과이므로, 이상의 소론이 완전치는 않더라도 이미 연보 등을 통해 알려진 이해조의 생애와 행적을 고찰하는 일과 〈춘몽〉 텍스트 이외의 당대 《조선일보》 지면을 탐색하는 일로서 논의의 진전을 피하고자 한다.

이해조의 경우 수십 편의 신소설 작품을 창작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작품을 규명하는 연구는 주로 1913년 이전의 작품들에 집중되어 있다. 즉, 《제국신문》과 《매일신보》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시기의 연재물과 단행본 텍스트가 그것들이다. 사실 서론에서 열거한 이해조의 많은 필명들도 거의 《매일신보》 등 신문 지면에 신소설 작품을 연재하면서 사용한 것들이다.²⁶⁾ 1913년 《매일신보》 퇴사²⁷⁾ 후 이해조의 행적이

하등의 이유는 없다. 어쩌면 연재 종료 이후 신문 지면에서 원고를 다시 수집하는 것이 용이치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의 열악했던 발행 상황으로 볼 때 현존 자료의 미비는 비단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의 문제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 26) 예컨대 수문생(隨聞生)은 〈박정화〉 연재 당시의 필명이며, 선음자(善飮子)는 〈화세계〉(《매일신보》, 1910. 10. 1-1911. 1. 17), 신안생(神眼生)은 〈구의산〉(《매일신보》, 1911. 6. 22-9. 28), 하관생(遐觀生)은 〈월하가인〉, 석춘자(惜春子)는 〈화의 혈〉, 우산거사(牛山居士)는 〈소양정〉(《매일신보》, 1911. 9. 30-12. 17)을 연재할 당시 사용한 필명이다. 이 필명들은 ‘동농’ 혹은 ‘(이)열재’, ‘해관(자)’과 달리 해당 작품 연재 당시 이외에는 쓰인 예를 발견할 수 없다.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의 작품 중에는 〈탄금대〉(《매일신보》, 1912. 3. 15-5. 1), 〈소학령〉(《매일신보》, 1912. 5. 2-7. 6), 마지막 연재물이기도 한 〈우중행인〉(《매일신보》, 1913. 2. 25-5. 11) 등 필명이 표기되지 않은 작품도 다수 발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은 대단히 흥미롭다. “《대한민보》에 〈박정화〉를 연재할 당시 이해조는 동농이나 열재와 같은 평소 사용하던 호 대신 수문생이란 특이한 필명을 쓰고 있다. 수문생이란 필명은 이 소설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었을 뿐더러 그 뜻에 있어서 시정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초로 소설을 지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170쪽). 이와 같은 시각은 수문생만이 아닌 다른 많은 이해조의 필명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작품 발표에 관한 기록은 별로 남아 있지 않고 그나마 〈강명화실기〉
류²⁸⁾를 제외하면 고전문학 관련 텍스트들²⁹⁾이다.

1906년부터 1913년까지 쉼 새 없이 작품을 내어놓던 이해조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매일신보》 내부의 문제가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해조가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던 문예란에 후배 작가들이 등장하여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던 것인데, 신문사 측의 의도가 얼마나 개입되었는가를 차치하고라도, 이해조의 구세대적 감각으로는 더 이상 독자들을 설득하거나 후배 작가들에 비해 대중성 차원의 비교우위를 점하는 일이 힘들어진 것 아니겠는가.³⁰⁾ 마침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인직이 《매일신보》에 마지막 작품 〈모란봉〉³¹⁾을 연재하다가 미완으로 중단한 시기도 이해조의 은퇴 시기와 거의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신소설계의 두 거목이 동반 퇴장하는 시기로서 1913년은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1913년 즈음은 신소설 혹은 딱지본 형태의 봉건적이거나 통속적인 텍스트가 활발하게 유통되던 시기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해조가 신문 독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외면받은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의 대중 작가로서의 가치가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인직과 이해조의 초기 작품들은 1910년대뿐 아니라 1920, 1930년대에도 끊임없이 모방되고 변주되었던 것이다.

최소한 이해조가 세상을 떠난 1927년까지는 그가 보여준 작법이나 콘텐츠의 생명력이 남아 있었다. 이해조의 것이지만 작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필명 탓에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 몇 편에 이르는지조차 알 수 없다.

27) 이해조의 《매일신보》 퇴사 시점을 명확하게 밝힌 연보는 발견되지 않으나, 2년 이상에 걸쳐 여러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재했고, 〈우중행인〉 이후 갑자기 종적을 감춘 것으로 보아 〈우중행인〉의 마지막 연재일인 1913년 5월 11일 어간에 퇴사한 것으로 보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8) 『강명화실기』(회동서관, 1925), 『강명화전』(회동서관, 1927). 두 책 모두 표제 앞에 ‘여(女)의 귀(鬼)’라고 표기되어 있다.

29) 『홍장군전』(오거서창, 1918), 『한씨보응록』(오거서창, 1918) 등의 고소설 창작과 가곡 집 『정선 조선가곡』(신구서림, 1914)의 편찬이 그 예이다.

30) 이희정은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 신소설의 근대성 연구」(『현대소설연구』 22호, 2004. 6)에서 이해조의 소설 연재가 조일재 등의 변안소설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 사정을 소상히 분석하고 있다.

31) 이인직, 〈모란봉〉, 《매일신보》, 1913. 2. 5-6. 3(65회 미완).

이와 관련하여 근대 초기 정기간행물 매체의 작가 및 필명 처리 관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간행물에 여러 개의 텍스트를 수록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이 한 작품씩 써낸 것을 모으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당대의 실정은 그렇지 않았다.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한 사람의 문인이 해당 신문, 잡지에 두세 개 이상의 글을 실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도 간행물의 목차에는 하나의 필명이 여러 번 발견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필자명의 중복을 막기 위해 다른 필명을 만들어 썼기 때문이다. 글의 장르나 성격에 따라 혹은 내용에 따라, 최소한 필자명의 중복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필명을 나누어 쓰는 유명 문인들이 분명 있었다.³²⁾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어 1920년 창간 당시의 《조선일보》에 이해조가 쓴 글이 존재하는가를 추적하는 것도 〈춘몽〉 작가 검증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당대 《조선일보》에 이해조가 기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글을 실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최소한 《조선일보》 해당 자료에서 이해조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앞서의 모든 텍스트 내외적 검토를 강화하는 유력한 보충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로든 아니든 이해조가 《조선일보》에 관여하고 있었다면 연재소설의 집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수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때 현존 최고(最古)의 《조선일보》 자료 1920년 3월 9일자 4면에 게재된 〈창승과 밀봉〉³³⁾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쉬귀리[蒼蠅]와 꿀벌[蜜蜂]을 의인화하여 그들의 대화 및 토론을 교훈적 담론으로 구성한 단편 서사물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32) 각주 1)에서 언급한 '보경'이라는 이광수의 필명도 동일한 견지에서 볼 수 있다. 이광수가 보경이라는 필명으로 쓴 「문학의 가치」는 유학생 잡지 《대한홍학보》의 1910년 3월 호에 실렸는데, 동일 권·호에 이광수는 단편 〈무정〉을 '고주(孤舟)'라는 필명으로 게재하고 있다. 또한 김기진의 회고담에 의하면 자신의 팔봉(八峯)이라는 호는 《개벽》에 성격이 다른 2개의 텍스트를 동시 게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잡지의 주필 김기전(金起田)의 권유를 따라 지은 것이라고 한다. 1923년 여름 일본에서 귀국하여 본명으로만 《개벽》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던 김기진이 팔봉(산인)이라는 호를 처음 쓴 것은 《개벽》 1924년 1월호를 통해서였다. 평론 「지배계급교화 피지배계급교화」를 '팔봉산인(八峯山人)'이라는 필명으로, 수필 〈눈물의 순례〉를 본명 '김기진(金基鎭)'으로 동시에 게재한 것이다. "0시에 만난 사람-팔봉이 된 사연", 동아방송, 1966년 9월 9일 방송; http://dbs.donga.com/comm/view.php?r_id=03984&r_serial=01, 참조.

33) 게재 지면에 '蒼蠅과 蜜蜂'이라고 제목을 표기하고 있다. 한자 옆에 한글로 '창승, 봉밀'을 병기했는데 봉밀은 내용상 밀봉의 오기이다. 실제로 본문 안에 '밀봉'이라는 대화지문의 주체가 나타난다. 같은 지면의 〈춘몽〉에는 없는 회차 정보가 〈창승과 밀봉〉에는 '(二)'라고 표기되어 있다.

연재 2회분이고, 마지막에 완료 표지는 없지만 내용상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지런한 끝벌과 게으른 쉬파리를 등장시켜 끝벌로 하여금 악습을 경계하고 근검절약해야 한다는 교훈을 설파하게 했다.

창승의 말과 밀봉의 말이 번갈아가며 인용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마지막 논평을 제외하면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앞서의 연재 1회분에서는 서두를 서술자의 말로 시작하고 창승과 밀봉의 대화를 이어나갔으리라 짐작된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변화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창승의 미련함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결국 현명한 밀봉처럼 근검절약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뜻인데, 식자과정에서의 오자와 탈자가 너무 많아 정확한 자구의 뜻은 재구하기 어렵다.

텍스트의 내용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대화지문의 인용 방법이다.

(창승) 자네는 가위 언족이식비도다. 자네가 불철주야하고 화홍중으로 왕리하여 외양은 운잇는 듯하나, 기실은 화죽을 취코져 골몰흥이니, [...] (인용자)

(밀봉) 그는 악한 계모가 효자의게 허물을 써우고져 너의 일신을 구집하여 짐짓 초마 속에 너음이오, 결코 너의 주유로 그른 일을 헝흠 안이니, 족히 너의 흥자될 바 업느니, (인용자)³⁴⁾

대화지문의 화자를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하는 이 익숙한 방법은 같은 지면의 연재소설 〈춘몽〉에도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표기법은 분명 1920년대의 기준으로 보아 낡은 것임에 틀림없다.

〈창승과 밀봉〉과 〈춘몽〉은 토론체 우화와 서사 중심의 신소설이라는 형식의 차이와 더불어 그 길이도 단편과 장편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한글 표기의 방식이나 문체, 대화지문의 삽입 방식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춘몽〉의 주요인물 이시종이야말로 〈창승과 밀봉〉에서의 창승과 같은 존재이다.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하지 않고 나태한 나날을 보내며 현명한 주변인물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인물인 것이다. 어쩌면 장편 〈춘몽〉의 서문 성격을 띤 알레고리적 우화가 〈창승과 밀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단편 서사물의 필자는 ‘이열자(怡悅子)’이다. ‘이열(怡悅)’ 혹은 ‘이열

34) 이열자, 〈창승과 밀봉〉, 《조선일보》, 1920년 3월 9일자, 4면.

재(怡悅齋)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는 열재 이해조가 이 텍스트의 주인이다. 1920년 3월 이후 수개월 동안 이해조는 《조선일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장편 연재소설 및 단행서사 텍스트 등을 통해 집필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신보》 퇴사 이후 몇 차례 단행본 출판 이외의 공식적 문단 활동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던 이해조이기에 〈춘몽〉의 작가를 해명하는 작업은 이해조의 작가론을 수정·보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에 연재된 〈농가월령가〉³⁵⁾ 등의 자료를 비슷한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0년 7월 7일 〈춘몽〉의 연재가 56회로 마감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23일 《조선일보》의 4면에는 〈농가월령가〉가 연재되기 시작한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라는 제목 외에 따로 회차를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각 월령의 지표가 부기되어 있어 회차 정보를 대신하고 있다. 즉, 하루에 1개 월령씩 가사를 나누어 연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연재물의 저자 난에는 ‘동해농인(東海農人)’이라는 필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물론 이 가사를 ‘동해농인’의 창작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동해농인이라는 필자가 채록하여 정서한 연재물로 보는 것이 여러모로 자연스럽다.

주지하다시피 고전 시가나 판소리 사설을 채록하고 산정하여 활자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이해조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일이었다. 신문 연재를 통하여, 단행본 출판을 통하여 4개 마당에 이르는 판소리 사설의 당대적 정본화³⁷⁾를 시도한 이도 이해조이고, 《매일신보》에서

35) 동해농인, 〈농가월령가〉, 《조선일보》, 1920. 7. 23-8. 6.

36) 8월 1일자부터 2일자까지 2회분(8, 9월령)은 ‘東海農人’이라고 필자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식의 결과로 추정된다. 8월 4일자 자료부터 다시 ‘東海農人’이라는 필명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한자 3자에 한글 1자가 조합된 필명 자체가 부자연스럽기도 하다.

37) 이해조는 〈옥중화〉(《매일신보》, 1912. 1. 1-3. 16), 〈강상련〉(《매일신보》, 1912. 3. 17-4. 26), 〈연의 각〉(《매일신보》, 1912. 4. 29-6. 7), 〈토의 간〉(《매일신보》, 1912. 6. 9-7. 11)을 ‘해관자’라는 필명으로 연달아 연재하였다. 4개 텍스트 모두 연재 지면에 텍스트의 제목 이후 구술(口述)한 명창의 이름을 먼저 표기하고 이어 ‘解觀子 刪正’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당시의 이해조는 판소리 사설을 산정하여 연재하면서 창작 신소설 연재를 병행하고 있었다. 〈춘의춘〉(《매일신보》, 1912. 1. 1-3. 14), 〈탄금대〉(《매일신보》, 1912. 3. 15-5. 1), 〈소학령〉(《매일신보》, 1912. 5. 2-7. 6)의 전체 연재 기간과 〈봉선화〉(《매일신보》, 1912. 7. 7-11. 29)의 초반 일부가 판소리계 신소설이라고 일컬어지는 4개 텍스트의 연재 기간과 겹쳐 있는 것이다. 〈춘의춘〉에는 ‘이열재(怡悅齋)’라는 필명이 기재되어 있는 데 비해 〈탄금대〉와 〈소학령〉에는 필자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 〈봉선화〉에는 해관자라는 필명이 기재되었다. 즉, ‘해관자’라는 필명이 2개의 텍스트에 동시에 쓰인 것은 6개월이 넘는 긴 기간 중 1912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의

은퇴한 이후 당대의 명창과 교류하며 가곡집 『정선 조선가곡』을 편찬한 이도 이해조였던 것이다. 게다가 ‘동해농인’이라는 필명에서 ‘동농’이라는, 현대 독자에게도 익숙한 이해조의 호를 연상하는 것은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VI. 맺음말

《조선일보》의 첫 장편 연재소설 〈춘몽〉은 이해조의 작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글에서는 〈춘몽〉의 작가를 해명하기 위하여 작품 내외적 조건과 당대 및 이전의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근대 초기의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필명을 추적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후속 연구 및 문학교육의 장에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다.

1906년 〈잠상태〉³⁸⁾, 1907년 〈고목화〉³⁹⁾ 등의 초기 소설 발표를 시작으로 작가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한 이해조는 《기호홍학회월보》 등의 잡지를 통해 계몽적 논설을 발표하고, 《제국신문》, 《대한민보》, 《매일신보》 등의 신문에 작품을 연재하거나 단행본을 출판하는 방식으로 독자와 소통하였다. 1913년 《매일신보》에서 퇴사할 때까지 그는 작가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당대의 계몽적 서사 담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후 1927년 타계할 때까지 10여 년간 이해조의 작품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은 지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그의 말년에 해당하는 1920년대에 《조선일보》를 기반으로 한 활동 재개 양상이 있었음을 밝혔다. 관해생이라는 필명으로 《조선일보》의 첫 연재 장편 〈춘몽〉을 집필한 사람은 《기호홍학회월보》의 편집자이기도 했던 관해생 이해조였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간 당시 《조선일보》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춘몽〉의 연재가 외부 필진에 의한 것이

시기뿐이다. 이 또한 동일 지면에 필명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꺼리는 당대의 관행 탓이었을 것이다. 만약 선행 연구의 도움 없이 당대 《매일신보》 자료를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탄금대〉와 〈소학령〉의 작가를 해명하기 위해 이 글과 유사한 추적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38) 이해조, 〈잠상태〉, 《소년한반도》, 1906. 11-1907. 4.

39) 이해조, 〈고목화〉, 《제국신문》, 1907. 6. 5-10. 4.

아닌 내부 기자의 집필이었으리라는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춘몽〉이 같은 시기 《매일신보》에 연재되던 서사 텍스트의 양식적 특질과 비교할 때 구투에 가까운 신소설의 느낌을 주는 점, 1910년 이전 텍스트인 이해조의 〈구마검〉과 유사한 특질을 형식·내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도 더불어 논하였다.

〈춘몽〉의 연재 시기 중 《조선일보》 4면을 통해 발표된 단행서사 〈창승과 밀봉〉, 그리고 〈춘몽〉 연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같은 지면을 통해 연재된 〈농가월령가〉의 필자가 각각 ‘이열자’, ‘동해농인’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조 등 근대 초기의 몇몇 문인이 수많은 필명을 사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당대 간행물의 편집 관행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이해조의 수많은 필명이 당대의 독자들에게 각각 다른 집필 주체의 이름으로 인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일 권·호의 잡지 목차에 필명이 중복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면, 한 사람의 작가가 한 신문의 연재 지면을 독점하는 식으로 인식되는 것도 꺼려졌을 것이다. 이것이 이해조가 《매일신보》에 연달아 소설을 연재하면서 여러 개의 일시적 필명을 고안해야 했던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이해조의 《조선일보》에서의 활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되었지만, ‘관해생’이라는 묵혀두었던 필명을 다시 꺼내어 쓴 것은 《매일신보》 재직 당시의 습속을 따른 것이면서 기자 겸 작가로서의 생활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행위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해조의 작품과 1920년대 작품 활동의 일단을 밝히고자 한 이 글은 이해조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는 다른 텍스트의 검증, 여타 작가의 미확인 필명을 추적하는 후속 연구의 2차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해조 및 이해조 작품세계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해조의 광범위한 작품세계를 가능한 한 전모에 가깝게 고증하는 일, 특히 그의 후반기 작품을 발굴하고 고찰하는 일은 근대를 계몽사업의 콘텐츠로 이해했던 신소설 작가로부터 본격적 근대문학 이론과 작법으로 무장한 신진 작가로의 소설사적 체계모니 이동과정을 재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근대 초기의 소설사와 작가론은 지금까지보다 촘촘한 맥락으로 빈 곳 없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기호홍학회월보》 1-12호. 1908. 8-1909. 7.
- 관해생, 〈춘몽〉. 《조선일보》, 1920. 3. 9-7. 7.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서울출판사, 1997.
- 동해농인, 〈농가월령가〉. 《조선일보》, 1920. 7. 23-8. 6.
- 민태원, 〈부평초〉. 《동아일보》, 1920. 4. 1-9. 4.
-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조선일보》, 1916. 11. 10-23.
- _____, 「문학의 가치」. 《대한홍학보》, 1910. 3.
- 이열자, 〈창승과 밀봉〉. 《조선일보》, 1920년 3월 9일자, 4면.
- 이인직, 〈혈의 루〉. 《만세보》, 1906. 7. 22-10. 10.
- _____, 〈귀의 성〉. 《만세보》, 1906. 10. 14-1907. 5. 31.
- _____, 〈모란봉〉. 《매일신보》, 1913. 2. 5-6. 3.
- 이해조, 〈잡상태〉. 《소년한반도》, 1906. 11-1907. 4.
- _____, 〈고목화〉. 《제국신문》, 1907. 6. 5-10. 4.
- _____, 〈구마검〉. 《제국신문》, 1908. 4. 25-7. 23.
- _____, 〈박정화〉. 《대한민보》, 1910. 3. 10-5. 31.
- _____, 〈화세계〉. 《매일신보》, 1910. 10. 12-1911. 1. 17.
- _____, 〈월하가인〉. 《매일신보》, 1911. 1. 18-4. 5.
- _____, 〈화의 혈〉. 《매일신보》, 1911. 4. 6-6. 21.
- _____, 〈구의산〉. 《매일신보》, 1911. 6. 22-9. 28.
- _____, 〈소양정〉. 《매일신보》, 1911. 9. 30-12. 17.
- _____, 〈옥중화〉. 《매일신보》, 1912. 1. 1-3. 6.
- _____, 〈춘외춘〉. 《매일신보》, 1912. 1. 1-3. 14.
- _____, 〈탄금대〉. 《매일신보》, 1912. 3. 15-5. 1.
- _____, 〈강상련〉. 《매일신보》, 1912. 3. 17-4. 26.
- _____, 〈연의 각〉. 《매일신보》, 1912. 4. 29-6.7.
- _____, 〈소학령〉. 《매일신보》, 1912. 5. 2-7. 6.
- _____, 〈토의 간〉. 《매일신보》, 1912. 6. 9-7. 11.
- _____, 〈봉선화〉. 《매일신보》, 1912. 7. 7-11. 29.
- _____, 〈우중행인〉. 《매일신보》, 1913. 2. 25-5. 11.
- _____, 『정선 조선가곡』. 신구서림, 1914.
- _____, 『한씨보응록』. 오거서창, 1918.
- _____, 『홍장군전』. 오거서창, 1918.

_____, 『강명화실기』. 회동서관, 1925.

_____, 『강명화전』. 회동서관, 1927.

이희정,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 신소설의 근대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2호, 2004. 6, 93-115쪽.

최성윤, 「한국 근대초기 소설 작법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조선일보》 초창기 연재 번역·번안소설과 현진건」. 『어문논집』 65호, 2012. 4, 463-485쪽.

최찬식, 『춘몽』. 박문서관, 1924.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0시에 만난 사람-팔봉이 된 사연”. 동아방송, 1966년 9월 9일 방송; http://dbs.donga.com/comm/view.php?r_id=03984&r_serial=01.

국 문 요약

《조선일보》의 첫 연재소설은 관해생의 〈춘몽〉이다. ‘관해생’이 어느 작가의 필명인지는 현재까지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춘몽〉의 작가를 해명하기 위하여 작품 내외적 조건과 당대 및 이전의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더불어 근대 초기의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필명을 추적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후속 연구 및 문학교육의 장에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창간 당시 《조선일보》의 상황을 살펴보고, 동 시기의 경쟁 매체인 《매일신보》, 《동아일보》의 상황과 비교해본 결과 〈춘몽〉은 외부 작가가 아닌 내부 기자가 집필한 텍스트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구투에 가까운 신소설적 양식, 1910년 이전 텍스트인 이해조의 〈구마검〉과 유사한 특질을 형식·내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 1920년 9월 정간 이전의 《조선일보》 자료에 이해조의 것이라 여겨지는 텍스트가 게재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이해조가 편집인으로 활약했던 《기호홍학회월보》에 관해생이라는 필명이 발견되는 점 등을 작가 해명을 위한 보충 근거로 삼았다.

〈춘몽〉은 이해조의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기호홍학회월보》뿐 아니라 《조선일보》 지면에 등장한 ‘관해생’은 이해조의 필명이다. 수많은 필명을 일시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연재물 교체에 따른 신문 지면의 공백을 없앴던 기자 겸 작가 이해조는 《매일신보》 퇴사 후 7년 만에 《조선일보》를 통해 비슷한 패턴의 집필 활동을 재개했던 것이다.

투고일 2012. 6. 2.

수정일 2012. 8. 22.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관해생(Kwanhaesaeng), 〈춘몽〉(‘A Spring Dream’), 이해조(Lee, Hae-jo), 필명(pen name)

